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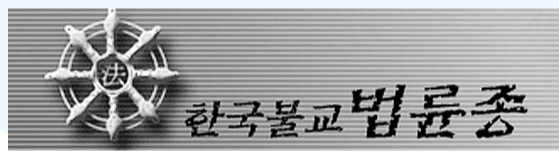
고려말 보우원증 법통 전승...주요종단 자리매김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자리잡은 법륜종 총본산 지장암전경.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법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을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부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순례



한국불교 법륜종 약사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온 이래로 교와 선이 함께 융성했지만, 대립과 분쟁이 잦아 혼란이 거듭돼 왔다. 이에 고려 말엽 보우원증(普愚圓證) 국사께서 일불승(一佛乘)의 대법(大法)을 크게 제창하시어, 이로부터 불교의 독자적인 종문(宗門)이 열렸다. 이 같은 보우원증 국사의 법통을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88년 대전 보광사에서 초대 종정에 금암(錦岩) 대중사를 모시고 한국불교 법륜종 창종을 선언했으며, 이는 일제 때 제정됐던 불교약법인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같은 해에 첫 창종이었다. 이어 1990년 6월 15일에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했다.

법륜종은 현재 전국 2백50여개의 사찰과 2백30여명의 스님, 1백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불교계 주요 종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8년 서울 도봉구에서 일화(一華) 스님을 초대 총무원장으로 종문을 활짝 연 법륜종은 이듬해 2월 경기도 봉덕사에서 제1기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충남 보령사에서 종단 중앙연수원을 개원하는 등 종단 승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륜종은 1991년 4월 문화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2년에는 <월간 법륜종보>를 창간해 문서포교에도 앞장섰다. 이후 1996년에는 목포 보현정사에서 종단차원으로 단일계단 수계산립법회를 봉행했으며, 2000년 1월 제3대 종정에 정각 스님(보현정사 주지)이 추대됐다.

사찰 250·신도 100만명...1988년 창종

한국불교 법륜종 종지종풍

- 종명: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韓國佛敎法輪宗)
- 교주: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 종조: 보우원증국사(普愚圓證國師)
- 종흥조: 청허휴정선사(淸虛休靜禪師)
- 종지: 석가모니불의 자각각타(自覺覺他)하신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정신(根本精神)을 본체(本體)하고 종조(宗祖)의 선교쌍수(禪敎雙修)의 통불교적(通佛敎的)인 종풍(宗風)을 선양(宣揚)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宗旨)로 한다.
- 종풍: 가삼존자(迦葉尊者)로부터 연원(淵源)된 第56대 석축(石屋) 청공선사(淸空禪師)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아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때 보우원증국사(普愚圓證國師)의 원융종풍(圓融宗風)을 종풍(宗統)으로 삼아 그 법맥(法脈)을 면연(綿綿)히 계승승(繼承承)한다.
- 소의경전: <화엄경(華嚴經)>과 <금강경(金剛經)>으로 하고, 기타 경전(經典)의 연구와 지송(持誦)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한국불교 법륜종 조직

종정예하: 靈山正覺大律師	포교원장: 性學
예경실장: 慈明	총무부장: 度明
초대종정: 錦岩 大永	교무부장: 光眞
원로원장: 慧牛 智用	사회부장: 慧星
사정원장: 碧松	문화사업부장: 優謫
사정원부장: 虛舟 石湖	재무부장: 智嚴
중앙총회의장: 慧眼 唯景	규정부장: 賢悟
중앙총회부의장: 度界, 聖陀	총무국장: 道一
총무원장: 德山 昌法	사회국장: 金輪
총무원부장: 普明, 古山	재무국장: 三慧
교육원장: 法泉	교무국장: 善門
연수원장: 明眞	규정국장: 龍雲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
전화 041)734-5377-8, 팩스 041)734-5379

“율법 재정립...사회 이끄는 불교로”

법륜종 종정 정각스님



“통불교인 한국불교의 전통을 살려 불자들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자세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받기’ 위주였는데, ‘주는’ 불교, 사회에 회향하고, 사회를 이끄는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가 후 50년 가까이, 새벽 3시 예불에 참석하고 7시까지 기도

립했다. 두리아카데미를 통해 문화·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스님은, 스님들이 사회의 한 축이 되어 사회정화와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근불교진흥회의 회장을 맡을 만큼 근포교와 재소자 포교에도 관심이 지대한 스님은 30여년 넘게 재소자교화 활동을 해 온 공로로 수많은 표창과 지난 98년에는 교정대상 대통령상

선·교·율 두루 겸비...군·재소자 포교 앞장

참선을 하더라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수행자의 길을 철저히 걸어가고 있는 법륜종 종정 정각스님은 불교 불모지인 호남권에서 보현정사를 목포 지역 최대 사찰로 중창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선(禪)교(敎)율(律)을 두루 겸비한 대표적인 율사스님중 한분인 정각스님은 불교의 생명을 철저히 계승에 있다며 “시대에 부응하는 율법을 재정립해 선포하고 스님들은 엄격하게 지켜야 승가가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3월 그동안 정제를 일찍이 관리해 모은 8억을 목포시에 내놓아 ‘두리아카데미’를 설

까지 받았을 정도다.

요즘 이렇듯 비슷한 신생 불교종단들의 난립에 대해 불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정각스님은 “종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재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종도가 결집이 되어야 하는데, 되는대로 쉽게 만들어진 종단들은 그 구성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게 된다”며 “한국 대표종단들의 협의체인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신생 종단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육성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스님



“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 스님(논산 지장암 주지)은 법륜종 총본산 지장암에서 종단의 비전과 종무방침을 이렇게 밝혔다.

지난 88년 창종에 이어 91년 종정 일화스님을 이사장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불교계의 주목을 받는 종단으로 출범한 법륜종은 새롭게 종단발전의 중흥기를 열고 있다. 그동안 법륜종 종정에 경실장, 총회의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등 종단의 요직은 물론, 왕성한 불교계 활동을 펼쳐온 창법 스님은 법륜종의 위상 제고와 함께 법륜종이 시대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총무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 법륜종 사찰의 순방이었습니다. 스님과 종도들의, 종단발전의 시지 않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단 구성원의 염원을 종단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법륜종이 명실상부한 대승교화종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창법스님은 특히 11월 30일 열린 창종 15주년 기념법회에서 종단 총본산 건립의 뜻을 올렸다. 수행과 교육의 중심도량이 될 총본산에는 강원 및 울진, 영산법계교육원, 사회복지법인 법륜원 사무국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창법스님은 총본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3년간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새싹불자 육성·경전 대중화 앞장

종단주요사업

복지

유치원 4·어린이집 2곳 운영
지장암에 연화대...납골봉안

법륜종의 복지 사업은 2000년 8월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법륜원으로 대변된다. 저소득가정의 자녀 보육을 위해 그동안 법륜종은 목포 보현유치원을 비롯 논산 지장암에 보육시설인 선재어린이 집, 인천 정도사 효성어린이집, 광주 원효유치원 등 종단 산하 유치원 4개, 어린이 집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법륜종은 전국 주요 사찰에 사회복지법인 법륜원의 지부를 설치,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분야에도 복지사업영역을 특화시키고 있다. 특히 종단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 등은 이미 이 지역에서 ‘법륜종은 노인복지 종단’이라는 대명사가 불을 만들, 그 명성

또한 대단하다. 게다가 법륜종은 화강문화를 오늘날에 되살리려고 지난 2000년부터 납골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현재 목포 보현정사, 논산 지장암, 양평 갈월사에 납골영탑 시설이 있다. 특히 법륜종 총본산인 지장암에는 전체 2,700여기의 납골을 봉안할 수 있는 연화대(蓮花臺)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납골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강원·울원·영산범음법대 등 체계적인 승가교육시스템

법륜종의 교육은 강원, 울원, 영산범음법대 등의 체계적인 승가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 4월 논산 용곡사에 개설된 전문강원, 목포 보현정사울원 등을 비롯해 5년 전부터 예산 법륜사에서 영산범음법대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가교육의 경우, 어린이 포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새싹불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불교도서출간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륜종은 그동안 학술도서연구 작업을 진행시켜, 드디어 12월 13일 <우리말 그림 도설 지장경>을 발간했다. 이는 포교와 교육을 접목해 법륜종이 벌이는 역경

사업으로, 법륜종은 앞으로 주요 불교경전을 만화 형식으로 계속 발간해 불교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제교류

대만·미얀마·일본 불교계와 불교문화교류 꾸준히 추진

법륜종의 국제교류는 대만 불교계와 10년 넘게 교류하고 있는 ‘동수회(同修會)’로 대변할 수 있다. 원로회의 의장인 혜우 스님이 주축이 된 동수회는 그동안 대만에서 열린 세계승가대회에 줄곧 참가하는 등 양국 불교문화교류협력에 지대한 노력을 해왔다. 또 98년부터는 미얀마 불교계와 국제교류를 벌이면서 현지에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한일불교교류협의회 회의를 맡는 등 일본 불교계와의 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



◇2천7백여기를 봉안할수 있는 납골당연화대(蓮花臺).



◇사회복지법인 법륜원이 운영하는 선재어린이집.



◇올 6월 금강구에서 봉행된 방생법회.



◇지난 2000년 대만서 열린 ‘세계승가대회’에 참가한 법륜종 방문단.